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의 무용 수업 비평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김지영* · 윤정은**

I. 서론	IV. 논의 및 결론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의 확산으로, 기존의 교육에서 탈피한 새로운 학습 환경을 위한 비전이 제시되었다. 학생들의 상호소통과 협력 학습을 중시하는 자기주도 학습과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¹⁾ 특히, 2009 개정교육과정에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은 기존의 재량 및 특별활동을 통합한 교육과정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양성 교육의 실천’과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활동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는 주입식의 교수자 중심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창의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체험활동으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적합한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²⁾ 이는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험의 영역을 다각화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기초생활습관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개성과 소질의 발현에 역점을 두고 있다.³⁾ 이와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과의 문화적 교감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창의적인 학습 환경 그리고 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수자의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요구한다. 이처럼 문화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개발은 현재 모든 교육 담론의 중심이자, 교수와 학교교육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다.⁴⁾ 교실 내 효과적인 교수와 학습은 학생들의 장점이 확인, 육성, 활용되는 의미 있는

* 주저자,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강사, jeyun20@naver.com

1) 한국교육개발원(2011), 21세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미래전략 연구, p.75.

2)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해설, pp.13-14.

3) 앞의 책, p.18.

4) Chepyator-Thomson, J.R. (2004), Multicultural education: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The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 Dance*.

수업 환경에서 성취될 수 있다⁵⁾는 점에서 교수 학습 전략으로도 강조되고 있다. 학생의 학업성과를 위한 필수적 요인은 그들의 기여가 표출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온전하게 학습 관계로 옮겨지고, 교실에서의 의사소통의 기본이 되는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에서 수업 환경의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⁶⁾ 특히, 이러한 학습 환경에서 주목할 것은 Richards와 Brown 그리고 Forde(2007)⁷⁾의 주장처럼 모든 학생이 학습에서 최선의 기회를 갖도록 교실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곧 교수자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⁸⁾은 학습 환경의 구축에서 교수자 역할의 중요성과 교수자의 기대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즉, 교수자가 만드는 교육적 상황과 환경이 학생들의 교육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⁹⁾ 지금까지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¹⁰⁾과 청소년 및 중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한 무용 교육 연구¹¹⁾는 학습자들의 교육성과 및 학습자 중심의 교육 증대 연구들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무용 교육에서 교수내용과 방법, 그리고, 교수자들의 질적 측면은 수업사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수업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개별적인 사건, 현상에 대한 집중적이고도 포괄적인 기술과 분석으로 질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물의 최종산출물을 제시¹²⁾하기 위한 수업 사례를 선정하였고, 그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의미를 얻고자, 교육상황에서의 변화 양상과 과정을

-
- 5) Bishop, R., and M. Berryman, (2006). *Culture Speaks: Cultural Relationships and Classroom Learning*. Wellington: Huia Publishers. Macfarlane, A.(2004). *Kia Hiwi ra! Listen to Culture—Maaori Student's Plea to Educators*, Wellington: New Zealand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 6) Bishop, R., and T. Glynn, (1999). *Culture Counts: Changing Power Relationships in Education*. Palmerston North: Dunmore Press, pp.64-68.
- 7) Richards, H., A. Brown, and T. Forde.(2007). *Addressing diversity in schools: Culturally responsive pedagogy.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 8) Alton-Lee, A.(2003). *Quality Teaching for Diverse Students in Schooling: Best Evidence in Schooling: Best Evidence Synthesis*. Wellington: Ministry of Education.
Baskerville, D.(2008). *Tell your story, listen to mine: Storytelling in one New Zealand classroom*, MEd thesis, Griffith University, Australia.
Bishop, R.(2001). *Changing Power relations in education: Kaupapa Māori messages for mainstream institutions. In The Professional Practice of Teaching*. Palmerston North: Dunmore Press.
Bishop, R., and M. Berryman, (2006). *Culture Speaks: Cultural Relationships and Classroom Learning*. Wellington: Huia Publishers.
Macfarlane, A.(2004). *Kia Hiwi ra! Listen to Culture—Maaori Student's Plea to Educators*. Wellington: New Zealand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Bishop, R., M. Berryman, T. Cavanagh, and L. Teddy.(2007). *Te Kohitanga: Phase 3 Whanaungatanga: Establishing a Culturally Responsive Pedagogy of Relation in Mainstream Secondary School Classrooms*. Wellington: Ministry of Education.
Bishop, R., and T. Glynn.(1999). *Culture Counts: Changing Power Relationships in Education*. Palmerston North: Dunmore Press.
Macfarlane, A.(2004). *Kia Hiwi ra! Listen to Culture—Maaori Student's Plea to Educators*. Wellington: New Zealand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 9) Hale, A., J. Snow-Geron, and F. Morales.(2008). *Transformative education for culturally diverse learners through narrative and ethnography.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4(6), pp.1413-25.
- 10) 성소영(2006). 초등학교 창의적 재량활동 예술교육 사례연구 : 부산광역시 남부 관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혜란(2009). 초등학교 숲 체험 창작무용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선빈(2013). 이선빈(2013). 창의력 향상을 위한 초등 즉흥무용 수업 경험,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김옥희(2010). 고등학교 창작 무용 수업연구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 제안. 모드니 예술, 149-168.
신소라(2013). 청소년 체험활동 무용과 특수목적 무용교육 제도 비교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12) Wolcott, H. F. (1992). *Posturing in qualitative research*. In *Th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San Diego, CA: Academic Press), pp.3-52.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¹³⁾ 특히, 이 연구는 교수자가 자신의 무용수업 사례에 대하여 수업비평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세계관이 내러티브로 표현된 내러티브(narrative) 연구이다. 이와 같은 내러티브 관점은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 형태로 조직화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구조로, 일련의 사건들을 일어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단순히 나열하는 연대기와는 구분된다.¹⁴⁾ 이 연구에서 내러티브는 수업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이야기 이상으로, 연구자의 분석과 해석의 대상이 되는 수업 안의 환경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구성해가는 수업 현상을 하나의 분석 텍스트로 하여 수업 활동의 과학성과 예술성, 수업 참여자의 의도와 연행, 교과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한 수업탐구로 교수자의 수업 비평¹⁵⁾을 시도했다. 이와 같은 수업비평은 교육과정의 가치구현을 위한 평가적인 기제로서 수업 현상과 행위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를 개념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⁶⁾ 이와 관련하여, 유아, 미술, 체육 분야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업 비평 및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서¹⁷⁾ 교수자의 교육학적 관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무용 수업에서 교수자의 자기 수업비평을 통한 내러티브 관점이 주는 교육적 시사점 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초점으로 구체화되었다. 첫째, 교수자가 8차시 무용수업과정에서 교수 내용의 구성과 전개를 어떻게 이끌어어나갔는지, 둘째, 교수자가 8차시 무용수업과정에서 교수방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개선해 나갔는지, 셋째, 8차시 무용수업과정에서의 교수경험과 수업에 대한 비평이 교수자 스스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사례의 선정

이 연구는 사례의 구체성, 서술성, 발견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의 연구 환경으로 서울 소재 C초등학교에서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3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8차시 수업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C 학교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문화예술교육 예술 강사를 지원받아 무용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무용 수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원활한 기관이었다. 또한, 교내 합창부 운영 및 스포츠 활성화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지정 교과 수업 외에 학생들

13)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San Francisco, CA: Jossey-Bass).

14) Clandinin & Connelly, F. M. (2000), *Na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ive Research*(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5) 김진희, 심준석, 최원준(2010). 내러티브를 활용한 수업비평: 교사 배움 공동체 사례. *중등교육연구*, 58(3): 333-355. 심준석(2014). 교사의 자기 수업 비평 실천. 안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6) 강현석(2007). 교사의 실천적 지식으로서의 내러티브에 의한 수업비평의 지평과 가치 탐색. 『*교육과정연구*』 25(2), pp.1-35.

17) 최홍섭(2013). 초등 예비교사의 체육수업에 대한 수업비평. *한국초등교육*, 24(1): 63-86

강문숙(2014).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수업설계 구안. *아시아교육연구*, 15(1): 1-26.

진형란, 유태명(2014).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교육실습생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6(1): 81-99.

의 올바른 인성 함양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목표로서 예술 교육을 적극 활성화하고 있었다.

또한, 이 연구는 사례연구 중에서도 한 학교 내 네 학급에서 이루어진 사례를 전체적으로 조합하여 주요 속성을 이끌어내는 단일-전체 설계(holistic design)를 적용하였다. 수업은 매주 금요일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각각 40분씩 네 학급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인원은 한 학급당 약 20~23명이다. 무용 수업은 교내 별관에 위치한 실내 강당에서 이루어졌으며, 수업 전에 지정된 오디오와 무선 마이크를 설치하고, 이동식 칠판에 해당 차시의 수업 목표 및 활동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연구자들의 위치

연구자들의 위치 감안과 참여 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의 수행은 현장연구를 다루는 질적 기법 중 가장 총체적인 적용방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¹⁸⁾ 이 연구는 2인의 연구자가 수업 사례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내부자적(emic) 관점을 가지고 접근되었다. 연구자 중 1인은 연구자이자 교수자로, 초등학교 예술교육과 대학에서 무용교육을 경험하여, 자신의 수업사례를 직접적으로 설계, 수행, 비평하며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였다. 또 다른 연구자 1인은 대학에서 예술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예술교육자로, 수업사례 현장에서 구성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공식적으로 면담을 하는 등 현장의 경험에 완전하게 관여하는 완전 참여관찰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이 연구에서 내부자적 관점은 연구자들이 연구 대상이 되는 대상과 그들의 문화, 내부 환경 속으로 내부자가 되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의미 범주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 보다 심도 있는 의미를 도출해 내는데 보다 효과적 인 전략이었다.

3. 현장 텍스트

이 연구는 수업비평 방식의 내러티브 연구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구성해가는 수업현상을 하나의 분석 텍스트로 하여, 수업활동의 과학성과 예술성, 수업 참여자의 의도와 연행, 교과와 사회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수업을 기술, 분석, 해석, 평가하는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글쓰기를 의미한다.¹⁹⁾²⁰⁾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연구주제에 대한 의도나 연구자의 편향(researcher's bias)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관찰, 심층면담, 수업관찰일지 등의 텍스트 자료를 반영한 다각측정법(triangulation)을 수행하였다. 특히, 연구자가 관찰한 것에 대하여 참여자들이 실행한 것 또는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제공하는 인터뷰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²¹⁾ 따라서 연구자들은 지속적으로 수업환경에서 관찰을 동반하며, 비 구조화된 인터뷰(unstructured interview)와 반 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를 혼용하였고, 녹취된 인터뷰내용은 모두 전사(transcription)하여 기록화하였다. 또한 8차시에 해당하는 수업 계획서, 수업일지 및 노트, 수업 영

18) Denzin, N. K. (1978),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London: Facet).

19) 이혁규(2007), 수업비평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탐색적 논의, 『교육인류학연구』 10(1), pp.151-185.

20) 김경은(2011), 사회과 예비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를 위한 수업비평, 『교과교육학연구』 15(3), pp.711-735.

21) Langdridge, D.(2004),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s and Data Analysis in Psychology*(Harlow: Pearson Education).

상을 기초로 현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텍스트이다. 연구 시작 전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였고, 연간 계획 설계에서 수업 일지 작성 및 평가, 수업 영상 촬영 등에 대하여 미팅이 이루어졌다. 수업일지는 수업이 진행 된 후에 작성하였으며, 해당 수업에 대한 메모 및 대화 내용을 토대로 면담 노트를 구성하였다. 면담노트는 연구자와 참여자간의 경험적 이해를 통해서 수업 비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참여자의 내러티브 경험을 상세하게 기술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4. 자료 분석

사례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조직화해서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단위로 분리하고, 자료 안에 숨어 있는 패턴을 찾는 작업으로²²⁾ 분석과정은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다.²³⁾ 이는 자료 수집동안에 어느 정도의 분석이 진행되어야 연구 목적과 부합된 연구 초점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Glaser와 Strauss²⁴⁾가 개발한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활용하였으며, 귀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내러티브 경험에 대한 현장텍스트를 주제별로 자료를 분류하는 개방코딩(open coding), 다른 속성과 특성에 의해 상위범주로 분류하여 범주화하는 축코딩(axial coding), 범주 확인의 과정으로 선택코딩(selective coding)단계를 거쳤다.

III. 연구 결과

1. 교수 내용

가. 구성: 발달수준과 교육목표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된 무용수업의 교수내용 구성은 단계별 발달수준과 교육목표에 따라 적용된다. 초중고에 걸쳐서 진행되는 무용 수업은 각 학령기에 적합한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무용을 탐색하고, 적용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단계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교육목표는 무용에 대한 지식과 기술 수준의 습득보다는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와 움직임 탐색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놀이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수업의 흥미를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체 움직임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며, 신체의 유연성과 리듬감을 향상시켜, 건강한 심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무용경험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확대시키고, 타인, 사물, 환경들과 올바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즐거운 학교생활을 돕고자 하는데 목표를 둔다.²⁵⁾

22) Bogdan, R. & Biklen, S. K. (2006), 『교육의 질적 연구 방법론』, 조정수(역)(서울: 경문사 2007).

23) Merriam, S. B. (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24) Glaser, B. G. & Strauss, A. 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Piscataway,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2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1), 『초등학교 무용 교수-학습 자료』, p.7.

〈표 1〉 8차시 창의적 체험활동의 구성

차시	학습개념	학습주제	학습목표	학습교구
1	신체인식	내 몸이 움직여요	몸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다.	
2	신체조절	움직이고 멈추기	몸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다.	
3	신체모방	거울되기	다양한 신체 움직임을 탐색하며, 타인의 움직임을 모방할 수 있다.	다양한 크기의 거울
4	신체모양	움직임으로 글자 만들기	글자의 모양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음과 모음의 단어카드
5	관계	풍선으로 춤추기	풍선의 움직임을 몸으로 표현하며, 연상하여 움직일 수 있다.	풍선
6	과학+무용	나비가 되어	나비의 모습을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나비 관련 사진, 영상
7	민속표현 및 문화탐색	러시아의 펭귄춤	펭귄 춤의 유래를 알고, 즐겁게 춤을 출 수 있다.	펭귄의 사진 및 영상
8	민속표현 및 문화탐색	네덜란드의 버디댄스	새의 움직임을 알고, 즐겁게 춤을 출 수 있다.	새의 사진 및 영상

초등학교 무용교수-학습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들이 구성한 것임



움직이고 멈추기



나비가 되어



거울되기

〈그림 1〉 발달수준과 교육목표에 따른 교수내용 구성

각 교시의 수업 시간은 40분으로, 총 8차시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체험활동 구성은 〈표 1〉과 같다. 초등학교 3학년 8차시에 해당하는 수업 계획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간한 초등학교 무용교수-학습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발달수준과 교육목표에 따른 교수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소속 학교의 담당 교사 및 학년 부장과의 토의를 거쳐 계획하였다. 8차시의 교과내용은 학습개념을 중심으로, 무용의 움직임에 놀이적 요소를 접목시켜, 흥미로운 수업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을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는 무용의 표현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체 조절, 모방 등의 개념들을 이끌어냄으로써 창의적 표현이 가능한 자세를 함양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차시에서 4차시까지 신

체 인식-조절-모방-모양의 순으로 학습개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열하였다. 이후, 5~6차시에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습득한 무용의 기본 개념들을 토대로 스스로가 표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였다. 5차시의 풍선을 활용한 수업은 풍선의 재질, 크기 및 모양의 변화들을 관찰하고, 이것을 움직임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6차시의 나비의 움직임은 나비의 성장과정을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움직임에는 1~4차시에서 습득했던 학습개념들이 총체적으로 결합하여, 움직임의 상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3학년의 교과과정으로 학습한 나비의 성장과정을 무용과 연계할 수 있었다. 7~8차시의 민속표현 및 문화탐색에서는 외국의 민속 문화를 탐색함으로써, 국가별 문화에 따른 움직임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나비와 뽕권의 움직임을 연상하여 즐겁게 임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하였다.

나. 몸과 마음의 유연화

무용 수업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수업의 특성상 안전한 움직임을 위한 몸의 유연화로, 이는 각 신체 부분의 움직임을 유연하게 하고, 움직임의 가동 범위를 확장시키고자 함이다. 몸의 유연화를 통해서 평소 신체활동이 부족한 학습자들에게 건강하고 유연한 신체를 다스리게 하며, 일련의 과정이 무용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확장된 몸과 마음을 통해서 잠재된 표현력을 표출할 수 있는 심신의 상태를 최적화할 수 있다.

리듬감이 있는 음악을 선곡하여, 학생들이 움직임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연상을 통한 사고력을 통해서 반복되는 움직임의 지루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연적인 소리의 음악을 도입부에 활용하여 학생들의 명상을 돕는 것이 수업의 집중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명상 및 몸의 유연화 과정을 통해서 확장된 움직임은 오투기가 되어보기, 개구리가 되어 Jump 하기, 피겨스케이팅의 Turn해보기, 둥근 공이 되어보기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상상력과 함께 자신의 몸에 대한 탐색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아이들이 강당에 들어오면 뛰어다니기 바쁘다. 그 심정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수업의 집중도를 높일까 하는 것이 항상 고민이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수업에 도입한 것이 명상.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눈을 감고, 새소리, 바람소리 등 자연적인 소리를 들으면서,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고 수업을 시작하는 것. 처음에는 어색해 하는 아이들도 점점 명상의 매력에 빠지는 걸까? 이제는 명상음악이 나오면 자세를 고쳐 앉는 이들이 눈에 많이 보인다. (2014. 5. 9 비평 노트에서)

전 명상 시간이 좋아요. 처음에는 눈을 오래 감고 있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노래가 나오면 그냥 눈이 감겨요. 명상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오늘은 어떤 무용 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요. (2014. 4.25 참여 학생 인터뷰에서)

다. 놀이요소와 연계된 주제 선택

무용 수업에서 놀이의 적용은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도입에서 놀이를 접목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흥미 및 동기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칫 놀이가 주된 활동

으로 인식됨으로써 무용 수업에서 이끌어내고자 하는 움직임에 제한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활동의 동기부여와 함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놀이 요소는 매 수업에서 고민될 만한 요소들이었다. 1차시 수업 ‘내 몸이 움직여요’에서는 각 신체를 움직여 자신의 이름을 쓰도록 하여, 즐거운 몸의 움직임을 탐색할 수 있게 하였다. 언어가 아닌 몸을 통해서 이름을 쓰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흥미로운 것으로 인식되면서, 수업 첫 시간에 익숙하면서도 다양한 몸의 움직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 ‘몸으로 이름쓰기’라고 하자, 기존의 ‘엉덩이 이름쓰기’를 떠올리는 참여자들이 많이 관찰 됨
- 팔, 다리, 머리 등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임
- 제자리에서 신체를 움직이는 것보다 이동하면서 멈추어 이름을 쓰는 것에 더 흥미를 보였으며, 친구의 이름을 알아맞히기를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관찰됨 (1차시 ‘내 몸이 움직여요’ 수업관찰 중에서)

예술 강사를 시작하면서 보람되었던 것은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즐거워 할 때이다... 이는 아마도 무용 수업에 놀이 요소를 많이 도입해서 전개하기 때문에 익숙한 놀이에 흥미를 가지는 것 같다... 오늘의 수업도 어떻게 아이들이 친근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엉덩이로 이름쓰기’가 떠올랐다 ... ‘엉덩이로 이름쓰기’를 적용해서 머리, 팔, 어깨, 등, 무릎 등을 움직일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었다...그러자 아이들의 움직임은 훨씬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변화했다...아... 아이들에게 놀이만큼 흥미를 주는 교육은 없구나...(2014. 3.14 비평 노트에서)

2차시의 ‘움직이고 멈추고’ 수업에서는 자신의 몸을 조절하는 탐색과정으로, 교안에서는 얼음 땡이를 도입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수업에서는 ‘그대로 멈춰라!’ 라는 노래를 적용시켜 수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모든 수업에서 놀이나 게임을 통해서 학생들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시키고 있었으며, 수업에 적용 가능한 놀이를 강구하는 것도 수업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자세이다.

지난 시간에 한 ‘몸으로 움직이기’의 즐거움을 잊지 않았는지, 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오늘은 뭐 해요? 라고 물어본다... 다행히 지난 시간의 수업이 재미있었나 보다... 오늘은 또 어떤 수업을 할 지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었다(2014.3.21. 비평 노트에서)

2. 교수 방법

가. 단계별 주제 선택과 구체화

모든 수업은 도입-전개-정리의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단계별로 학생들의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입에서는 몸과 사고의 유연화 과정을 통해서 창의적 움직임을 위한 몸의 이완과 구체적인 주제에 해당하는 움직임 탐색과 발전 과정을 전개부분에서 다루었다. 마무리에서는 학생들을 집중시킨 뒤에 해당 학습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발표 및 반성적 사고를 유도하였다.

모든 수업에서 도입은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부분이다. 도입에서 집중력 있게 아이들이 참여하면 그 시간은 매우 순조롭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명상의 효과가 좋다. 다행이다. 그런데 눈을 감지 않고, 살살 내 눈치를 보는 애들이 눈에 띄었다. 눈을 감는 시간조차 허락을 하지 않는 것인

지.. 나와 눈을 마주치자 이내 감는 척 하지만 쉽지 않은 모양이다(2014. 4. 25 비평 노트에서)

핑! 슈우욱.핑! 삐이익.순간 짹.. 정적이 흐른다. 아이들이 갖고 있던 풍선이 터지고 만다. 아뽀
씨! 이걸 아는데.. 짹 놀란 애들은 없나? 다행이 또 언제 터졌냐는 듯.. 개의치 않는다.그래 풍
선이 터지는 소리와 모양도 풍선의 움직임이지. 풍선이 터진 아이에겐 괜찮다고 격려하면서 풍선
이 터질 때의 느낌과 모습을 잘 생각해서 표현해보자고 했다... 풍선이 항상 둥글고, 떠나기만
하지는 않으니까. 여러 가지 풍선의 모습을 보고 움직임으로 해보는 것이 창의적 사고이지 않겠는
가! (2014. 4. 18. 비평 노트에서)

나. 창의적 사고를 이끄는 발문 체계

무용 수업에서 발문 체계는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움직임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교수법이다. 교수
자의 열려있는 질문과 답변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표현이 다양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발문 체계는 관심
유도-핵심질문-상호작용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무용 수업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관심유도이다. 본
격적인 움직임 탐색에 앞서 주제와 관련된 관심을 유도하는 일은 효과적인 무용 수업의 첫 단계로 중요
하다. 특히, 모든 수업에 해당 차시의 수업 주제 및 목표를 칠판에 기재하는 것이 관심을 유도하는 첫 단
계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관심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하여 적절하게 발문해줌으로써 수업의 흥미를 유도한다.

학 생: “어~! 나비가 되어보기?! 저 호랑나비 실제로 봤어요~!”

교수자: “정말? 좋은 경험했구나. 그럼 그때 느낌을 생각하면서 한번 움직여 볼까? 다른 친구들도
자신이 보거나 생각한 나비를 상상해서 자유롭게 움직여 볼까?”

〈6차시 나비가 되어 수업관찰 중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열린 사고를 할 수 있을까? 나의 물음이 정해진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창의적 체험인데, 오히려 사고를 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올바른 발문법이 무엇인지
책도 뒤적여 보았다. 그래도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아이들이 산만해지지 않을 정도의 움직임의 자
유를 허락하면서 창의적 움직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발문! (2014.3.28 비평 노트에서)

관심을 유도한 후, 학생들이 수업주제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내면, 다음으로는 수업 주제와 관련한 핵
심질문이 가능하다. 예로, 5차시의 ‘풍선으로 춤추기’는 풍선의 다양한 움직임을 보고, 표현하는 수업으
로 풍선의 느낌, 크기, 색깔, 하늘에서의 움직임, 풍선이 터질 때의 소리 또는 모양의 변화 등에 대한 질
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움직임에 상상력을 더해준다.

“풍선을 놓아주면 어떻게 움직일까”, “풍선 움직이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내가 풍선이
된다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오늘 내가 수업하면서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인 것 같다. 물론
두서없이 던졌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하려고 고민한 것들이다. 학생들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면서 조금 더 확장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요소를 적용하도록 해볼까
라는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 (2014.4.18. 비평 노트에서)

무용 수업에서 움직임에 대한 칭찬과 조언은 학생들의 움직임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적절한 칭찬과 조언을 통해서 학생들이 표현 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무용 요소를 적용시키면,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무용의 움직임에는 정답은 없으며 표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주지시켜줌으로써, 그들의 표현력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만, 다소 지나친 행동들은 주의를 줌으로써 무용 움직임의 본질을 왜곡시키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안돼, 하지마 와 같은 부정적인 언어는 내 수업에서는 가급적 자제한다. “이런 동작이 나온 뒤에는 어떤 동작이 연결되면 좋을까?”, “여기서 움직임 요소를 적용해서 속도의 변화를 주면 더 좋을 것 같아”라는 식으로 피드백을 많이 주고 싶은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래야 표현하는 아이들도 자신감을 갖고 임할테니까. “오늘 정말 잘했어... 지난 번 보다 훨씬 움직임이 다양해진 것 같다.”, “풍선의 움직임이 이렇게 다양했구나, 표현들이 아주 재미있었어.” 식의 표현이 아이들에게 무용 수업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 같다. 물론, 수업에 방해가 될 때는 부득이하게 제재를 하지만, 굳이 그런 경우가 아닌데 제한을 두면 안 되지 않나. (2014.3.28. 비평 노트에서)

다. 움직임 탐색과 발전

창의적 움직임은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는 것을 스스로 인지함으로써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가 강당에 나와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움직임을 즐거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유로운 표현을 유도하지만, 정해진 수업시간에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 없이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움직임 탐색 과정은 학생들의 집중도와 적극성이 최대에 도달했을 때 수업 패턴의 변화를 주어, 산만하지 않은 움직임을 이끌어 내었다. 구체적으로는 학습의 전개 초기에는 움직임에 대한 진지한 탐색을 통해 움직임 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발전시켜 다양한 움직임의 표현을 기대함으로써, 학생들의 움직임 표현을 진전시킬 수 있었다. 움직임 탐색이 끝나면, 움직임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무용의 요소를 적절히 적용하여, 움직임의 다양화와 표현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

“선생님! 여기보세요. 저희 글자 보세요!” 여기저기에서 학생들이 자기 모둠에서 만든 글자를 봐달라고 아우성이다. 누워있는 사람, 서서 있는 사람, 뒤돌아 있는 사람, 마주보고 있는 등 각기 저마다 글자의 움직임을 표현하느라 고군분투중이다. 각기 다른 단어들을 또는 같은 단어도 다르게 만들어내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어떤 경험인지 궁금하다(2014. 4.11 비평 노트에서)

초등 무용 기본교과 수업인 <움직임으로 글자 만들기>의 현장은 초등 3~4학년들을 대상으로 신체 모양을 인식하는데 교육활동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몸을 움직이고, 탐색하는 과정은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단계로, 초등 3~4학년에게 신체를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을 유도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신체를 움직여, 글자의 자음과 모음을 표현해 내고 있었고 친구들과의 협동을 통해서 조합된 단어를 생성하고 있었다. (2014. 4.11 수업 관찰 중에서)



사물의 형태



만들기 글자 조합하기



자음과 모음 표현하기

〈그림 2〉 움직임 탐색과 발전

라. 협동학습의 스토리텔링과 움직임

움직임 발전을 위한 교수법으로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을 활용하는데, 학습자들이 선정한 주제에 맞는 움직임을 구성하고 표현하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은 구성원들이 움직임을 탐색하고, 선정하여 표현함으로써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무대에서 발표가 가능하다.

1) 주제 이야기 만들기

협동학습에서 이야기 구조화는 움직임 선정에 있어서 우선시되는 과정으로, 제시된 주제에 맞는 스토리 구상이 목표가 된다. 이야기의 기승전결, 즉 시작과 전개, 마무리의 과정까지를 이야기로 구상한 뒤에 그에 적절한 움직임 선택까지도 연결할 수 있다.

티격태격 하면서도 진도를 잘 나가는 모듬이 있는가 하면, 의견이 결코 일치하지 않아서 그 상태를 정지 한 듯 한 모듬도 있다. 교사가 다가가 중재를 하고,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준다. 그래서야 조금씩 모듬의 이야기가 활발해지자, 종이에 무언가 끄적이며 글을 적는다. (2014.4.18 수업 관찰에서)

가장 시끄러우면서 열띤 시간이 바로 협동학습. 참으로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아이들이 자신들이 이야기를 꾸미고 해결하는 모습이 대견하다. 짧은 시간에 해결해야 하니깐 대충 의견 맞으면 진행 하고, 의견 안 맞으면 빠치고, 어찌 순조로울까. 이 시간만큼은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도록 나는 지켜보며, 필요한 조언만 해 줄 뿐이다 (2014. 4.25 비평 노트에서)

2) 움직임 구성 및 연습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 구성이 완료되면, 다음으로 진행이 가능한 것은 움직임 구성이다. 이야기를 토대로 각자의 역할을 정하거나, 희망하는 역할을 통해서 기초적인 움직임을 구성한 후에 협동으로 연습을 하게 한다. 이 때에는 모듬원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피드백을 제시해준다.

남학생들은 움직임을 하라고 하면 주제와 상관없이 좋아하는 만화 표현하고, 여학생들은 그래도 스토리에 맞게 움직임을 구성하려고 한다. 이게 참으로 어렵다. 모듬마다 관찰하면서 너무 움직임

이 없는 건 아닌지, 스토리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체크하면서 피드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2014. 4.11 비평 노트에서)

3) 발표 및 평가

발표는 협력학습에서 최종 결과물로, 발표에 대한 긴장 해소 및 협동학습을 통한 책임감 형성 그리고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무대매너와 발표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학생들의 발표 참여자로서의 자세 뿐 아니라 그것을 관람하는 관객들의 입장에서 무대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며, 최종 발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인 반성을 하게 한다.

학생1: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쑥스럽지만, 재미도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도 보면서 우리랑 어떻게 다른지도 알 수 있고요.

학생2: 표현을 잘하는 친구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부러워요.

학생3: 제가 하고 싶은 동작을 하고, 친구들이 웃어주고 재미있어해서 계속 보여주고 싶어요.
(2014. 5. 16 참여 학생들 인터뷰에서)

“우리 모두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웠는가?”, “연습한 대로 발표가 이루어졌는가?”, “발표의 시작과 끝이 잘 표현되었는가?” 등으로 평가를 혼자 하던 관람자들과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된다. 친구들의 발표에 관심없어 보이지만, 아니었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친구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평가를 할 줄 아는 관람자. 그리고 발표가 쑥스럽지만 친구들이 보니까 끝까지 하는 모습들 그것이 중요하다(2014. 4.15 비평 노트에서)

3. 교수자의 성장 내러티브와 교육적 성찰

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 지도는 교육 현장에서의 예술 교육자로서의 무한한 자부심을 함양하게 하였다. 학생들에게 즐겁게 무용을 지도한다는 것은 생소하지만 굉장히 설레는 일로 예술 교육자로서 두 가지의 성찰을 제공하였다. 첫 번째로,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성찰이다. 모든 수업 후에는 일지를 통해서 학습자와의 소통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반성을 한다. 과연 나의 수업이 흥미로웠는가, 학습자들이 교수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 방법이 적절하였는지 등을 통해서 수업의 전개에 대한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평가한다.

솔직히 예술 강사 선발된 이후 한동안은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수업을 했었다. 입시무용만 지도하고, 동작 수정에만 급급하고 익숙했던 터라, 창작수업임에도 정해진 사고와 움직임을 요구했던 것은 아닌지, 정해진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닌지, 매일 고민하고 되뇌이고 반성하면서 나 스스로를 다스렸다. 나는 이제 한명의 예술 강사가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교육자. 예술교육자다.(2014. 5.9 비평노트에서)

두 번째로, 교수 역량의 발전, 예술 교육자로서 적절한 교수법 및 교구 개발에 대한 성찰과정이다. 경력이 쌓이면서 수업에 대한 이해와 역량도 발전하는 가운데, 과연 나의 교수법이 적절한지, 수업 시 어

조, 발문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업교구가 필수적임에도 교구 개발에 대한 지식 및 지원 한계의 안타까움을 느낀다.

나. 무용교육자의 정체성

무용 예술가이자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수업에 최선을 다하지만, 종종 경험하는 수업에 대한 물음은 예술 교육자로서의 직업 정체성에 혼란을 가중시킨다. 일반적으로, 무용이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 함양과 유연한 신체를 유지하는데 필수적 교과로 역설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의 학생들에게 무용은 체육 수업의 하나인 것으로 인식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들이 내던지는 의문과 물음으로 인해 예술교육자로서의 위치와 비전에 대한 정체성에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된다.

학기 초에 어떤 반 아이가 던질 질문이다. “선생님 체육시간인데 왜 무용해요?” 오늘은 또 여러명의 아이가 이런 질문을 던져서 날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니까 공차고 놀아요~”아. 이럴 때에는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야 이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경험할 수 있게끔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건 우리만의 생각 아닌가? (2014. 5. 16. 비평노트에서)

다. 무용교육의 사명감

무용의 움직임, 창작, 표현에 걸치는 일련의 과정들이 인간의 창의적인 사고와 인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의 현실에서 주입식 교과 수업에서 밀려나 무용을 비롯한 문화 예술 교육이 소외되었지만, 예술 교육자로서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극복하고 있으며, 경력이 축적된 지도자로서 무용 교육을 실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지도해야 할 무용 교육의 기본 원리, 개념, 활동들을 실연해보고, 고민해봄으로써 예술 교육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다면, 이제는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예술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있다.

벌써 6년차! 첫 연수에서 교재를 받아들이고, 학습과정을 파악하고 익히면서 과연 현장에서 어떻게 수업을 해야하지? 라는 생각 밖에 안 들었다. 많은 양의 교과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단순한 일이었다. 그래도 같은 동료들이 있었고,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 점차 나의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노하우도 생기고,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즐거운 것을 보면,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배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나를 기다리는 학생과 문화 예술 교육의 발전을 위해 내 열정을 힘껏 쏟으리라(2014. 5.16 비평 노트에서)

IV . 논의 및 결론

최근 무용교육과 관련된 국외의 사례연구들은 교수법과 전문성 개발에 초점을 두어 교수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각 연령대별로 발달에 적합한 교수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Frederiksen(2013)²⁶⁾의 연구는 무용 교수와 학습의 기준으로 학습 단계를 결정하며 춤추기, 춤 만들기, 무용에 대한 느낌과 생

각을 표현하기, 무용의 기법과 지식을 다른 교과목 및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포함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운동적, 미적 발달과 관련되는 사회적, 감성적, 인지적 발달 단계에 따라 청소년들을 위한 무용교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NDEO(National Dance Educators Organization)는 무용 예술의 교수와 학습의 기준에 실행, 창조, 호응, 상호관련성 등 무용의 핵심요소로 네 개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교수자는 자신의 개인적 편견, 자신의 문화, 더 중요하게는 학생들의 편견과 문화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⁷⁾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²⁸⁾의 교육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인 UNESCO-NIE 센터는 ‘싱가포르의 예술교육상의 실행 모습’이라는 사례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Lum과 Gonda(2014)²⁹⁾의 연구는 싱가포르 초등학교에서 정식 교과 과정 병행 활동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에서 전통춤을 주제로 한 주간 방과 후 활동과 그 교육과정에 적응하는 강사의 활동을 탐구하였는데, 이때, 인도 남부의 전통춤(바라트나트얌)을 가르치는 수석 무용 강사의 교수법과 실행 과정에서의 교수자의 문제의식에 초점을 두었다.

뉴질랜드에 있는 일반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무용교육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Melchior(2011)³⁰⁾의 사례연구는 문화적으로 교감하는 교수법을 초등학교 교실의 무용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사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반 교사와 그 학생들의 경험을 토대로 무용 교수자의 세계관 및 무용 교수와 학습에 대한 신념, 공감할 수 있는 관계성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무용교육에서의 비판적 사고, 기존 강점과 교수법을 통한 교수, 무용이 교실 프로그램으로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협력적 과정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활발한 상호작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무용 교수모형 틀을 제시해 주었다.

이와 같이 무용교육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발달단계에 따른 학습기준의 선정 뿐 아니라 문화적 차원의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환경을 구축하고 교수법을 적용하는 등 무용교육 전문성 개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높은 층위의 무용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교수자가 자신의 무용수업 사례에 대한 수업비평을 통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내러티브 과정에서 수업 과정과 변화, 교수내용이나 교수방법을 되돌아보고, 전문적 역량을 신장시키는 교육적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다. 수업사례에 관한 내러티브 양식은 수업의 상황과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찾고, 참여자들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데 관심을 두는 탐구적이고 발견적인 맥락에서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연구는 교수자가 자신의 무용수업 사례에 대한 수업비평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과 세계관이 내러티브로 표현된 내러티브(narrative) 연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26) Jo A. G. Frederiksen(2013), Pedagogical Practices in Dance Education Addressing Motor, Aesthetic, Social, Emotional and Cognitive Development For Pre-Kindergarten through Post-Secondary Students, A resource for aiding in the creation of developmentally appropriate Content Standards in Dance by The College Board & the National Coalition of Core Arts Standards.

27) Baskerville, D.(2009), Navigating the unfamiliar in a quest towards culturally responsive pedagogy in the classroom,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5, pp.461-7.

28) NDEO(National Dance Educators Organization), <<http://www.ndeo.org/>, 2014. 08. 15>.

29) Chee Hoo Lum and Donn Emmanuel Gonda(2014), Considerations of dance transmission processes: adapting Bharata Natyam in a Singapore primary school, *Research in Dance Education* 15(2), pp.107-119.

30) Elizabaeth Melchior(2011), Culturally responsive dance pedagogy in the primary classroom, *Research in Dance Education* 12(2), pp.119-135.

무용 수업에서 교수자의 자기 수업비평을 통한 내러티브 관점이 주는 교육적 시사점 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울 소재 C초등학교에서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에서 진행된 3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8차시 수업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사례연구 중에서도 한 학교 내 네 학급에서 이루어진 사례를 전체적으로 조합하여 주요 속성을 이끌어내는 단일-전체 설계(holistic design)를 적용하였다. 수업은 매주 금요일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각각 40분씩 네 학급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인원은 한 학급당 약 20~23명이다. 이 연구는 수업비평 방식의 내러티브 연구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구성해가는 수업현상을 하나의 분석 텍스트로 하여 수업을 기술, 분석, 해석, 평가하는 질적연구로 이루어졌다. 교수자의 내러티브 탐구에 의한 현장텍스트들은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단계의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에 의해 귀납적인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되었다. 첫째, 교수자가 8차시 무용수업과정에서 교수 내용의 구성과 전개를 어떻게 이끌어나갔는지를 살펴본 결과, 교수내용은 발달수준과 교육목표, 몸과 마음의 유연화, 놀이요소와 연계된 주제 선택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교수자가 8차시 무용수업과정에서 교수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단계별 주제 선택과 구체화, 창의적 사고를 이끄는 발문 체계, 움직임 탐색과 발전, 협동학습의 스토리텔링과 움직임 등이 적용되고 있었다. 셋째, 8차시 무용수업과정에서의 교수경험과 수업에 대한 비평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무용교육자의 정체성 그리고 무용교육의 사명감 등 교수자 자신의 성장 내러티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이루어진 무용수업에 대한 수업비평은 교수자가 만드는 교육적 상황과 환경이 학생들의 무용교육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반성적인 성찰을 가능케 했다. 이와 같이 수업비평에 관한 내러티브 관점은 수업 사례에서 얻은 교육적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의 질적 측면을 개선하고 가치를 향상시키며 교수자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용교육 현장에서 교육자들이 전문성 개발을 위하여 보다 실천적인 교육 행위로 이를 활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켜 준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해설』.
- 한국교육개발원(2011). 『21세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미래전략 연구 보고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1). 『초등학교 무용 교수-학습자료』.
- Alton-Lee, A.(2003). *Quality Teaching for Diverse Students in Schooling: Best Evidence in Schooling: Best Evidence Synthesis*. Wellington: Ministry of Education.
- Baskerville, D.(2008). *Tell your story, listen to mine: Storytelling in one New Zealand classroom*. MEd thesis, Griffith University, Australia.
- Bishop, R., and T. Glynn.(1999). *Culture Counts: Changing Power Relationships in Education*. Palmerston North: Dunmore Press.
- Bishop, R.(2001). *Changing Power relations in education: Kaupapa Māori messages for mainstream institutions*. In *The Professional Practice of Teaching*. Palmerston North: Dunmore Press.
- Bishop, R., and M. Berryman. (2006). *Culture Speaks: Cultural Relationships and Classroom Learning*. Wellington: Huia Publishers.
- Bishop, R., M. Berryman, T. Cavanagh, and L. Teddy.(2007). *Te Kohitanga: Phase 3 Whanaungatanga: Establishing a Culturally Responsive Pedagogy of Relation in Mainstream Secondary School Classrooms*. Wellington: Ministry of Education.
- Bogdan, R., & Biklen, S. K. (2006). 『교육의 질적 연구 방법론』. 조정수(역). 서울: 경문사. 2007.
- Clandinin & Connelly, F. M. (2000). *Na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Denzin, N. K. (1978).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 (2nd ed.), London: Facet.
- Glaser, B. G., & Strauss, A. L.(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Piscataway,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 Langdrige, D.(2004).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s and Data Analysis in Psychology*. Harlow : Pearson Education.
- Macfarlane, A.(2004). *Kia Hiwi ra! Listen to Culture-Māori Student's Plea to Educators*. Wellington: New Zealand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erriam, S, B, (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Wolcott, H. F. (1992). Posturing in qualitative research. In *Th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강문숙(2014).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수업설계 구안. 『아시아교육연구』, 15(1):

- 강현석(2007). 교사의 실천적 지식으로서의 내러티브에 의한 수업비평의 지평과 가치 탐색. 『교육과정연구』, 25(2): 1-35.
- 김경은(2011). 사회과 예비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를 위한 수업비평. 『교과교육학연구』, 15(3): 711-735.
- 김진희, 최원준, 심준석(2010). 내러티브를 활용한 수업비평 : 교사 배움 공동체 사례. 『중등교육연구』, 58(3): 333-355
- 김옥희(2010). 고등학교 창작 무용 수업연구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 제안. 『모드니 예술』, 149-168.
- 성소영(2006). 초등학교 창의적 재량활동 예술교육 사례연구 : 부산광역시 남부 관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소라(2013). 청소년 체험활동 무용과 특수목적 무용교육 제도 비교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준석(2014). 교사의 자기 수업 비평 실천. 안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선빈(2013). 창의력 향상을 위한 초등 즉흥무용 수업 경험,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치훈(2011). 초등교사의 체육교육과정 구현 양상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혁규(2007). 수업비평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탐색적 논의. 『교육인류학연구』, 10(1): 151-185.
- 정혜란(2009). 초등학생 숲 체험 창작무용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진형란, 유태명(2014).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교육실습생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6(1): 81-99.
- 추갑식(2012). 교사와 학생의 내러티브를 통한 수업비평의 탐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홍섭(2013). 초등 예비교사의 체육수업에 대한 수업비평, 『한국초등교육』, 24(1): 63-86
- Baskerville, D.(2009). Navigating the unfamiliar in a quest towards culturally responsive pedagogy in the classroom.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5: 461-467.
- Chee Hoo Lum and Donn Emmanuel Gonda(2014) Considerations of dance transmission processes: adapting Bharata Natyam in a Singapore primary school. *Research in Dance Education*, 15(2): 107-119.
- Chepyator-Thomson, J.R. (2004). Multicultural education: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The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 Dance*.
- Elizabaeth Melchior(2011). Culturally responsive dance pedagogy in the primary classroom. *Research in Dance Education*, 12(2): 119-135.
- Hale, A., J. Snow-Gerono, and F. Morales(2008). Transformative education for culturally diverse learners through narrative and ethnography.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4(6):

1413-1425.

Jo A. G. Frederiksen (2013). Pedagogical Practices in Dance Education Addressing Motor, Aesthetic, Social, Emotional and Cognitive Development For Pre-Kindergarten through Post-Secondary Students.

Johnson, M.(2004). Personalised learning: new directions for schools? *New Economy* 11(4): 224-248.

Richards, H., A. Brown, and T. Forde.(2007). Addressing diversity in schools: Culturally responsive pedagogy.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NDEO(National Dance Educators Organization). <<http://www.ndeo.org/>, 2014. 08. 15>.

논문투고일 2014. 08. 15

심사일 2014. 08. 19

심사완료일 2014. 08. 29

A Narrative Inquiry on Criticism of Dance Classes of Creative Experience Activity in Elementary School

Ji Young Kim* · Jung Eun Yun**

Professor of Department of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Sangmyung University*

Lecturer i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pose educational implications provided by narrative perspective through teachers' self-criticism of teaching in dance classes connected with creative experience activity in elementary school. This study is a narrative study on teaching criticism and was composed of qualitative research to describe, analyze, interpret, and evaluate teaching by making as an analysis text teaching phenomenon. Findings of the study were crystall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eaching contents were composed of development levels and teaching objectives, mind and body flexible, and theme associated with playing elements. Second, teaching methods were observed that theme selection and actualization by step, questioning systems, inquiry and development of movements, storytelling of cooperative learning and movements and so forth were applied. Third, it was found that teaching experience and criticism of the dance class were contributing to the teacher's growth narrative.

Keyword: Creative Experience Activity(창의적 체험활동), Criticism of Dance Classes(무용 수업 비평), Elementary School(초등학교), Narrative(내러티브), Qualitative Research (질적 연구)